"로보택시, 사람과 AI 경계 허무는 중요한 전환점 될 것"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김 기 혁

에스더블유엠 대표

24년부터 강남·서초 일대서 운영 3대의 로보택시로 빅데이터 축적 콜 7000건 넘고, 13만㎞ 이상 운행 무사고·높은 만족도로 수용성 확인

엔비디아·레노버와 손잡고 AI동맹 택시업계와 한국형 상생모델 추진 로보택시 외면하면 韓 경쟁력 퇴보

"사람과 AI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로보택시'다. AI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됐다면 로보택시도 운행할 수 있다. 한때는 한국에서 금기어가 됐던 '로보택시'가 내 옆으로 더욱 바짝 다가오고 있다."

김기혁 대표(사진)가 이끌고 있는 에스더블유엠(SWM)은 2024년 9월26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17.9㎢ 구역에서 3대의 로보택시를 운행하며 빅데이터를 쌓아왔다. 시범서비스인 만큼 운행시간은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요원도 운전석에 탑승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로보택시가 다닌 강남역, 압구정역, 선정릉역, 양재역, 청담역 등은 도로가 혼잡하고 새벽이지만 차량도 많은 험로였다.

이때문에 사고에 대한 우려, 신호 준수 오류, 낮은 이용률 등 주변에서 보내는 시각은 걱정 투성이였다.

로보택시를 우리보다 앞서서 도입해 운행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 강남에서 다니는 '한국형 로보택시'에 대해 예의주시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3대의 차량이 총 7000건이 넘는 콜을 소화했다. 강남 자율주행 운영구역에서 운행한 거리가 13만㎞를 넘어섰다. 당초엔 위험한 것을 누가 이용하겠느냐고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이용률은 일반 택시보다 더 높았다.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으로 오히려 택시보다 더 높게 나왔다. 시민들의 수용성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운행 기간 동안 사고 등 우려했던 일도 없었다.

김 대표는 "상대편 차량의 잘못으로 인해 일부 긁힘사고가 난 것만 빼면 사고가 전무했다. 로보택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요원이 수동운전을 한 것을 제외하면 100% 자율주행으로 운행하고 있다. 손님들로부터 콜을 받고 13만㎞를 넘게 운행하는 동안 데이터도 많이 쌓였다. 택시기사들도 로보택시가 단거리만 운행하다보니 교통 분담효과가 있다며 오히려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현장에서 엔비디아(NVIDIA), 레노버(Lenovo)와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다. 한국에 있는 벤처기업이 이들 글로벌 기업과 'AI 동맹'을 맺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다.

에스더블유엠은 개발 예정인 플랫폼을 올해 출시할 자사의 레벨4(Lv4) 로보택시에 탑재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우리의 로보택시 기술은 미국, 중국과 비교해 약 3년 정도 뒤처져 있다. 물론 따라가기 위해선 꼭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빠르게 따라가는 방법은 AI밖에 없다. 그래서 도 엔비디아 등과의 동맹이 중요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한국기업으로선 처음으로 AI 자율주행 글로벌 생태계에 들어가 다양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기술 확보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올해 초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조합과 손잡고 로보택시 대중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로보택시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서울에 있는 7만대 정도의 택시 가운데 2만대 가량이 법인택시다. 법인택시 운전 수요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회사와 택시 회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많다. 로보택시 도입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에게도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때 금기어였던 로보택시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도 관련 규제 개선에 상당한 공을 들여 걸림돌도 많이 해소됐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 로보택시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어 글로벌 3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에서 성공해 아직 로보택시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본, 독일 등으로 관련 기술을 수출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 사회가 로보택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분명 퇴보할 수 밖에 없다."

에스더블유엠은 현재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사 등도 겸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배터리업계, AI 안전관리·패키징 고도화 경쟁

주요 배터리사, '인터배터리' 참가
삼성SDI ESS 화재예방 SW SBI
AI 기반 배터리 이상 징후 사전 탐지
SK온 CTP·액침냉각 패키지 전시
팩 단위 포트폴리오 확장 본격화

삼성SDI, SK온 등 주요 배터리사들이 인터배터리 2026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관리 시스템과 배터리 패키징 고도화 기술을 선보인다.

8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오는 1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서 ESS용 화재예방 소프트웨어 '삼성 배터리 인텔리전스(SBI)'를 처음 공개한다.

SBI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배터리 상태와 이상 징후 등 전반적인 배터리 '건강'을 진단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 삼성SDI가 국내외 1400개 이상의 ESS 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독자 알고리즘을 통해 배터리 수명과 출력 등을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체 개발한 '상태 진단 지표'를 기반으로 노화 속도 편차와 출력 안정성 등 운영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잠재적 이상 셀을 식별해 종합적인 배터리 건강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사고 예방과 함께 운영·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삼성SDI는 하드웨어 안전 기술인 '모듈 내장형 직분사(EDI)'와 'No TP(No Thermal Propagation)'에 지능형 안전 시스템 'SBI'를 결합해 ESS 배터리 안전 관리 기술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국내 중앙계약시장에 공급되는 'SBB(Samsung Battery Box) 1.5'에 우선 적용한 뒤 SBB 전 제품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K온도 인터배터리 2026에서 셀투팩(CTP) 기술과 액침 냉각 기술을 결합한 배터리 통합 패키지 솔루션을 소개한다. 기존 셀·모듈 중심의 공급 구조에서 팩 단위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전시에서는 ▲파우치 CTP ▲파우치 통합 각형 팩 ▲대면적 냉각기술 CTP 등 CTP 기반 패키지와 ▲셀-모듈-팩(Cell-Module-Pack) 구조의 CMP 패키지를 선보인다.

파우치 CTP는 모듈을 제거하고 셀과 팩을 직접 통합해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도 제조 원가를 낮춘 구조다.

파우치 통합 각형 팩은 알루미늄 각형 케이스에 파우치 셀을 직접 적용해 부품과 공정을 줄이면서 외부 충격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했다. 대면적 냉각기술 CTP는 파우치 셀 배열 시 넓은 면 전체에 알루미늄 냉각 플레이트를 직접 결합하는 방식으로 열관리 효율을 높인 기술이다.

/원관희 기자 wkh@

에이스침대 봄맞이 온라인 웨딩 기획전.

에이스침대

예비·신혼부부 겨냥 온라인 웨딩 기획전

침대 베스트셀러 10종·구매혜택 마련

에이스침대가 봄을 맞아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에이스침대몰에서 온라인 웨딩 기획전을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8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기획전은 1인용과 2인용 베스트셀러 침대 10종을 세분화해 구성했다.

1인용 침대는 우아한 템바보드 디자인과 모듈형 프레임으로 감성과 공간 활용도를 모두 갖춘 '노벨라(NOVELLA)', 아늑하고 차분한 느낌을 강조한 '라노떼(LANOTTE)', 브리티시 레트로 감성의 싱글 침대 '올리보(OLIVO)'를 마련했다. 여기에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BMA1086', 'BMA1169'까지 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2인용 침대는 세미 클래식 디자인으로 포근한 무드를 선사하는 '플로라(FLORA)', '루체-III(LUCE-III)',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키는 'BMA1148' 등 에이스침대만의 감성이 돋보이는 제품들로 구성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대기업 손잡고 中企 수출길 넓힌다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 참여사 모집
올해 169억 규모로 50개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해외시장을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대기업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자원(인프라)과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해 역량은 있지만 해외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주관기업 공모를 거쳐 25개 과제를 올해 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번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본격 시작했다.

2026년 동반진출 지원은 169억원 규모로 약 5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2차 과제 모집은 오는 5월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대기업 등 주관기업 간 협업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유통이나 플랫폼, 방송사 등 2개 이상의 주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되며 주관기업별 전문성을 발휘해 단계별로 협업하게 된다.

중장기 프로젝트형 동반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장기 프로젝트는 참여 중소기업당 지원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늘리고, 제3국으로의 생산거점 이전(P턴)유형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K-뷰티, AI 분야 등 글로벌 진출 선도과제를 확대한다. 대기업의 글로벌 진출 노하우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결합해 수출 인바운드 마케팅 전개 등으로 해외진출 전략을 다각화한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동반진출 지원은 대기업의 역량을 중소기업과 결합해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했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기업 등 선도기업과의 사업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